

막차 탄 코인투자자 1/4 토막… 당국·은행 ‘나몰라라’

최고 2600만원서 600만원 폭락
가상계좌 발급 거래소 4곳 불과
은행들 “추가거래 은행 없을 것”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600만원 선까지 폭락했다. 지난달 최고 26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4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악재는 대내외에서 모두 불거졌지만 정부가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줄을 조인 것도 하락세를 부추겼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이후 일부를 제외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모두 한 발 물러서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이라고 밸을 빼고, 은행은



눈치만 보고 있다.

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660만4000원에 거래됐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

었던 지난 2일에 기록했던 연저점인 768

만6000원을 100만원 이상 밀돌았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4500원 선까지 올랐던 리플은 600원 선, 지난달 200만원을 돌파했던 이더리움 역시 70만원 대로 주저앉았다.

각국이 모두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고,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여기에 국내에서 거래 실명제 시행이 원활치 않은 것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밖에 없다.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자금 입금이 불가능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 확인된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당

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강조 했다.

반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중소 규모나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줬다가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면 모두 은행 책임”이라며 “지난달 당국으로부터 일제 현장점검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거래를 맺겠다고 나서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역시 “당국이 은행들에게 신규 계좌를 발급해 주는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사실상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이 청원에는 22만 8295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추천인수 20만명을 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metroseoul.co.kr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거래중단

은행서 가상계좌 신규발급 안해줘
신규발급거래소 빗썸 등 4곳 불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가 결국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지만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나서지 않으면서다.

코인피아는 6일 0시를 기해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말에 원화와 가상화폐 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이날부터 모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코인피아 측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운영해 온 가상화폐 거래소를 약 43개월 만에 종단한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속히 본인확인 실명제 연동을 은행 등에 요청했지만 기존 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당분간 연동가능성이 없음을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인피아는 “일반 법인계좌를 통한 원화 예치금 입금 및 반영도 검토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입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 결론짓고 거래를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코인피아를 비롯해 코인플러그,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가 은행과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다.

오픈을 준비하던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니스는 당초 거래 실명제가 시작되는 1월 말께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지니스 관계자는 “변화된 시장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거래소 오픈 일정을 미루게 됐다”며 “신규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발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거래실명제 1주일… 전환율 8% 불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주일이 다 됐지만 실명전환율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이 실명제 전환을 해야 하는 계좌 수는 총 174만5000개다.

이 중 지난 4일까지 실명전환이 이뤄진 계좌는 14만3300개로 8.21%에 불과했

다. 나머지 160만개 계좌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시중은행과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업비트는 총 57만개 계좌 중 7만1000개 계좌가 실명확인을 해 전환율이 12.46%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과 코빗이 12만5000개 중 1만2300개 계좌(9.84%)가 실명으로 전환했고, 농협은행의 코인원은 15만개 중 1만3000개(8.67%)가 실명전환을 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90만개 계좌 중 4만

7000개만 실명 확인을 해 전환율이 5.22%에 그쳤다.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더딘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돈을 주가로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서다.

신규로 입금할 순 없지만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매도한 돈을 뺄 수 있고, 기존에 넣어 둔 자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안상미 기자

실명제 대신 ‘직거래’… “미리 입금해둬 계좌개설 필요없어”

가상화폐 규제 사각지대 우려

‘비트코인 9000만원어치 팝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계좌의 실명화 대신, 가상화폐를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실명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은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로 입금 할 수 없다.

이에 빗썸,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30일 전후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던 가상계좌를 회수했다. 하지만 가상계좌가 회수된 투자가 이전에 입금해 뒀던 돈은 거래소에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실명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고객상담원은 “기존의 투자금은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실명 계좌전환을 하지 않은 회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인 직장인 C(34) 씨는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도 돈을

더 넣지만 않는다면 불편한 점이 없다”며 “실명제 전에 미리 입금을 해둬서 한동안 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까지 낮아져 투자자들이 입출금을 자제하고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이은 가상화폐 규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광풍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 개인 직거래사이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 직거래사이트 코イン이라는 거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유재희 인턴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암호화폐 스토리

공청회서 SEC위원장 등 증언키로



미국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가 6일(현지시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암호화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의 증언이 예정돼 있다.

/블록미디어

CO 규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암호화폐, ICO에 대한 규제가 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에서는 가상통화와 ICO에 대한 규제가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낸스(Bitfinex)의 비트코인 시세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최근 몇 개월동안 비트파이낸스와 테더코인 발행기업인 테더의 시세 조작여부에 대해 SEC와 CFTC는 부정조사를 진행해왔다.

/블록미디어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3월 7일 ~ 3월 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총 8강
- (주말반) 2018년 3월 10일 ~ 3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총 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원~~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 25일(일), 3월 27일(화)

2018년 3월 7일(수) ~ 3월 29일(화)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